

## 삼국통일전쟁기 김유신의 전략과 전술\*

송영대\*\*

1. 머리말
2. 김유신의 전략 입안과 활용
3. 김유신의 전투 전개와 전술 운용
4. 맺음말

## 【국문초록】

신라는 삼국통일을 하면서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신라의 전략과 전술은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김유신은 智將으로 평가되어, 뛰어난 전략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김유신의 전략으로 기만전략삼도운용전략간첩 활용 전략을 손꼽을 수 있다. 기만전략은 상대를 속여서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삼도운용전략은 군대를 3군으로 나누어 운용하면서 적재적소에서 적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간첩전략은 鄉間·內間·反間을 활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김유신의 전술로는 돌격전술·기습전술·위장전술·포위전술·역습전술을 거론할 수 있다. 돌격전술은 적진으로 돌격해 들어가서 적진을 교란시키고 타격을 입히는 전술로, 신라에서는 목숨을 바치며 勝機를 잡는 사례가 많았다. 기습전술은 거짓패배 후 유인하여 타격을 입히거나 기상을 활용하여 공격하는 경우가 있었다. 위장전술은 아군의 형세를 속여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적을 교란시키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포위전술은 공성전 때 주로 전개되며 항복 권유를 하여 상대방의 軍勢와 人心을 꺾고 공격하는 사례가 보인다. 역습전술은 상대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격을 가한 전술에 해당한다.

김유신은 전략과 전술을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여,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크게 일조하였다. 김유신은 전략과 전술은 신라가 그동안 전쟁을 겪으면서 축적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신라의 군사적 역량 강화가 곧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4년 군사사연구총서 용역사업-7세기 후반 삼국의 격변과 신라의 삼국통일’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건국대학교 강사.

주제어 : 삼국통일, 신라, 김유신, 전략, 전술

## I. 머리말

新羅는 三國統一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戰略과 戰術을 개발하고 전쟁에서 이를 활용하였다. 신라의 전략과 전술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나 金庾信의 활동에서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의 일등공신으로 『三國史記』에서도 이러한 그의 戰果를 인지하여 「列傳」에서 상·중·하 3권을 할양하여 업적을 기술하였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전쟁 기간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활약을 하였으며, 각 전투에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펼쳤다. 기존의 연구는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을 전체적인 전쟁이나 각 전투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식으로 이행된 사례가 많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략과 전술의 측면에서 김유신의 군사적 활동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삼국통일기 신라의 전략과 전술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삼국통일기 신라의 전략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연구가 이행되었다. 리델 하트의 간접적 근전략을 활용하여 전쟁 양상을 파악한 사례가 있고,<sup>1)</sup> 6~7세기 신라의 전략으로 기만전략·화전양면전략·해상전략을 거론한 사례도 있다.<sup>2)</sup> 나당연합군의 백제 공격전략으로 기만전략을 고찰한 사례도 있으며,<sup>3)</sup> 신라군의 양동작전과 당군의 양공작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전략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4)</sup> 아울러 신라의 한산주 방어전략의 변화 양상을 파악한 연구도 이행되었다.<sup>5)</sup>

삼국통일기 신라의 전술에 대해서는 기록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연구만 이행되었다. 김유신의 전술과 관련하여 첩자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행되었으며,<sup>6)</sup> 6~7세기 신라의 전술로 분산배치전술과 기습전술·단기돌격전술·유인전술과 의병지계·간첩 활용 전술로 구분하여 파악한 연구도 있다.<sup>7)</sup> 무기를 통해 전술을 파악한 연구도 수행되었으며,<sup>8)</sup> 기병전술을 크게 騎兵 單獨戰術과 步騎合同戰術로 구분하여 고찰한 사례도 있다.<sup>9)</sup>

김유신의 전략과 전술은 전투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삼국통일의 군사전략이라는 주제로 다룬 연구서가 있다.<sup>10)</sup> 김유신의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투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가 많다. 이를테면 황

1) 나승균, 2012.

2) 송영대, 2015a.

3) 이상훈, 2016a.

4) 이재준, 2016.

5) 고창민, 2021.

6) 金瑛洙, 2007.

7) 송영대, 2015a.

8) 이준성, 2014 ; 송영대, 2015b.

9) 柳昌煥, 2010.

산별 전투,<sup>11)</sup> 평양으로의 군량 수송작전,<sup>12)</sup> 북한산성 전투,<sup>13)</sup> 평양성 전투와 임진강 전투<sup>14)</sup>를 고찰한 연구들이 이행되었다. 이 외에 김유신의 사상형성 과정과 사상적 배경에 대해 살펴본 연구도 수행되었다.<sup>15)</sup>

삼국통일의 최대 공신으로 김유신이 손꼽힌다. 김유신은 삼국통일전쟁 때 수많은 전투에 참여한 공을 인정받아 고구려 멸망 이후에 太角干의 직위에 올랐으며,<sup>16)</sup> 사후에는 興武大王이라는 王號가 추존되기까지 하였다.<sup>17)</sup> 김유신이 태대각간이라는 직위를 받게 된 사유에 대해 『職官志』에서는 元謀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8)</sup> 『金庾信傳』에서는 唐太宗이 金春秋에게 김유신의 명성을 들었다고 하자, 김춘추는 김유신에 대하여 才智가 있다고 하였다.<sup>19)</sup> 즉 김유신은 智謀가 뛰어난 장군으로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운 智將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

이처럼 현재까지 삼국시대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개별 전투를 중심으로 분석한 사례가 주를 이룬다. 이번 연구에서는 김유신의 전투 수행을 분석하고, 지장으로서의 면모를 어떤 식으로 발휘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김유신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는지 살펴보고 전투에서의 전개 양상도 파악하고자 한다.

## II. 김유신의 전략 입안과 활용

군사학에서 戰略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사회·경제·군사 등 통합된 전력을 운용하는 방법이나 전략’으로 정의된다. 이는 다소 큰 개념이며, 전쟁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전쟁 수행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전쟁 수단들을 설정된 목표에 집중시키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즉 전략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김유신은 지장으로서 여러 전략을 입안하여 전투에 적용하였다. 전략은 전쟁의 방향을 크게 설정하였을 때,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김유신에

10)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2.

11) 윤일영, 2011 ; 문동석, 2016 ; 이상훈, 2021.

12) 이상훈, 2012 ; 노양규, 2013.

13) 이상훈, 2016b.

14) 이민수, 2022.

15) 金福順, 2008.

1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上 8년. “冬十月二十二日 賜庾信位太角干 仁問大角干”.

17)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後興德大王封公爲興武大王”.

18) 『삼국사기』 권38, 지7, 職官 上, 太角干. “太角干[或云太舒發翰] 文武王八年 減高句麗 授留守金庾信以太角干 賞其元謀也 於前十七位及大角干之上 加此位 以示殊尤之禮”.

19)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太宗皇帝曰 聞爾國庾信之名 其爲人也如何 對曰 庾信 雖少有才智 若不籍天威 豈易除鄰患”

20) 이태규, 2012.

대한 기록은 전투 위주로 기술되어 있고, 전쟁은 국가 단위로 수행하는 것이다보니, 김유신만의 전략을 크게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여러 전투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김유신의 전략으로 크게 3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즉 기만전략과 삼도운용전략, 그리고 간첩 활용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전략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만전략

기만전략은 적을 속여 아군에게 유리한 전황을 만드는 전략을 의미한다. 사실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은 물론 때로는 아군도 속여야 한다. 김유신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였던 인물이었다. 다음 장에서 언급할 전술 중에서도 기만의 범주에 해당할 만한 사항으로 위장전술과 역습전술이 있지만, 이는 전투 단위에서 펼쳐진 것이기에 기만전략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김유신이 펼친 기만전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642년 김춘추 구출작전이 있다. 642년 8월에 신라는 大耶城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백제가 경남 합천을 장악하게 되었다. 합천에는 黃江이 흐르며, 이는 洛東江으로 합류하여 상류로 올라가면 경주로 直功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된다. 신라가 守勢에 몰리고 김춘추의 딸 古陀炤娘과 사위 金品釋이 사망하게 되자, 김춘추는 642년 겨울에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게 원수를 갚고자 다짐하였다.<sup>21)</sup>

당시 신라는 백제의 위협 때문에 급하게 고구려에게 손을 뻗었다. 그렇지만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羅濟同盟으로 고구려에게 대항하면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의 영토를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호시탐탐 이 일대의 회복을 원하였다. 溫達이 南進하여 戰死한 것도 신라에게 빼앗긴 疆域을 회복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구려는 신라의 요청을 고스란히 들어줄 수만은 없었다.

때문에 고구려는 신라에게 竹嶺 서북의 땅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곳은 고구려가 원하던 故土였고, 이 일대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신라와 전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만큼, 신라로부터 최대한의 이득을 얻고자 한 것이었다. 이는 김춘추의 請兵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sup>22)</sup> 김춘추는 당시 신라의 伊滄이라는 고위직이었지만, 단독으로 영토의 할양까지 관장할 수 있는 직위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고구려측과 갈등이 생겨서 김춘추는 別館에 유폐되었다.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서도 「新羅本紀」와 「김유신전」의 기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金富軾은 이에 대해 古記의 기록이므로 별도로 수록한다고 밝혔다. 두 기록이

2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 “是月 百濟將軍允忠 領兵攻拔大耶城 都督伊滄品釋 舍知竹竹·龍石等死之 冬 王將伐百濟 以報大耶之役 乃遣伊滄金春秋於高句麗 以請師……(中略)……便詣王曰 臣願奉使高句麗 請兵以報怨於百濟 王許之”.

22) 김덕원, 2016.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에서 김유신이 등장한다는 것은 공통점으로 확인된다.

우선 「신라본기」에서는 김춘추가 몰래 사람을 보내 善德女王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고, 이에 왕은 大將軍 김유신에게 결사대 1만명을 거느리고 나아가게 하였다. 김유신이 漢江을 넘어 고구려 남쪽 경계에 들어서자, 寶藏王이 김춘추를 놓아 보냈다고 하였다.<sup>23)</sup>

반면 「김유신전」에서는 김춘추가 先道解의 조언으로 龔主簿傳의 사례에 따라 귀국하게 된다면, 왕에게 죽령 서복을 할양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춘추가 고구려로 들어간지 60일이 지나자, 김유신이 군사 3천 명을 선발하여 출동 기일을 정했다고 하였다. 이 소식이 고구려 간첩 승려 德昌을 통해 고구려에 알려지게 되었고, 보장왕은 김유신의 할양 약속과 김유신의 진군을 모두 고려하여 더 이상은 안되겠다고 여겨 김춘추를 신라로 돌려보내게 하였다.<sup>24)</sup>

그렇다면 이 당시 김유신은 실제로 1만 혹은 3천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로 진군하고자 하였을까? 사실 두 기록으로 보았을 때 본격적으로 고구려와 전쟁을 개시하고자 의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1만의 병력은 진평왕 때 고구려가 북한산성에 침입할 당시 왕이 직접 이끌고 방어진 병력에 해당한다.<sup>25)</sup> 즉 1만 혹은 3천의 병력은 본격적인 원정에 나서기에는 많은 병력이 아니며, 일부 국지적인 戰役에서 활용할 병력에 해당한다. 더구나 백제가 대야성을 차지한 상황에서, 신라로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신규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마땅치 않았다.

그렇지만 고구려로서도 당시 한반도 남부에 대대적으로 守勢를 갖추기에는 역시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다. 唐과의 전쟁 대비로 상당수의 병력이 북쪽과 평양성 일대에 포진되어 있었으며, 남부에는 소규모의 주둔 병력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김유신이 이끄는 1만 혹은 3천의 군대는 본격적인 싸움을 주도하기는 어렵더라도, 고구려 일부 영토를 공격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때문에 김유신은 소규모 병력이라도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는 사전에 김춘추와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전」에 따르면 김춘추는 고구려로 가기 전에 김유신과 만나,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는 곧 60일이라는 기한을 상정해 놓고, 그때까지 오지 않으면 김유신이 나서달라는 의미이다.

2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1년. “春秋潛使人告本國王 王命大將軍金庾信 領死士一萬人赴之 庾信行軍過漢江 入高句麗南境 麗王聞之 放春秋以還”.

24)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春秋聞其言 喻其意 移書於王曰 二嶺 本大國地分 臣歸國 請吾王還之 謂予不信 有如皞日 王迺悅焉 春秋入高句麗 過六旬未還 庾信揀得國內勇士三千人 相語曰 吾聞 見危致命 臨難忘身者 烈士之志也 夫一人致死當百人 百人致死當千人 千人致死當萬人 則可以橫行天下 今國之賢相 被他國之拘執 其可畏不犯難乎 於是 衆人曰 雖出萬死一生之中 敢不從將軍之令乎 遂請王 以定行期 時高句麗謀者浮屠德昌 使告於王 王前聞春秋盟辭 又聞謀者之言 不敢復留 厚禮而歸之 及出境 謂送者曰 吾欲釋憾於百濟 故來請師 大王不許之 而反求土地 此非臣所得專 嚮與大王書者 圖遁死耳”

25)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眞平王 25년. “二十五年 秋八月 高句麗侵北漢山城 王親率兵一萬以拒之”.

이에 따라 김유신은 군대를 준비하여 진격할 태세를 갖춘 것이다.

물론 고구려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김춘추와 김유신 단둘이 결정하고 시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고구려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에는 병력이 열세였으며,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즉 김유신이 군대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은 일종의 虛張聲勢이며, 기만전략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간첩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들을 역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구려 또한 당과의 싸움에서 軍勢를 요동으로 집중시켜야 하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신라에 대한 악감정이 형성되었다. 결국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 국지적인 공세를 보였으며, 이 때문에 644년에 相里玄奘은 고구려의 신라 공격을 그만두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sup>26)</sup> 김유신은 당시 고구려의 정황을 파악하고, 미리 군대를 준비하여 김춘추의 안전한 귀국을 도모하였는데, 이러한 판단은 기만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 삼도운용전략

三道運用戰略은 군대를 3군으로 분산시켜 진군하거나 적을 공격하는 방식의 전략을 의미한다.<sup>27)</sup> 고대부터 三軍은 군대의 기본적인 구성 체제로 알려져 있었다. 삼군은 전체 군대라는 뜻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周의 제도에서 천자는 6軍을, 제후는 3軍을 보유한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sup>28)</sup> 이후 시대가 흐르면서 전체 군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국가의 全軍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선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吳子』에서도 齊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그 왼쪽과 오른쪽을 공격하고 위협하여 쫓으면 그 진영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29)</sup> 즉 3군으로 병력을 분산시켜 상대의 여러 방면을 공격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김유신도 군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크게 3군으로 나누어 싸운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진군 방향을 서로 달리하여, 適時에 합세해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삼도운용전략은 백제와의 싸움에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A-1. 3월에 백제의 장군 義直이 서쪽의 변경을 침공하여 腰車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이 이를 근심하여 押督州의 都督인 庾信에게 명하여 (대책을) 도모하게 하였다. 유신은 이에 士卒을

26) 『삼국사기』 권21, 고구려본기9, 寶藏王 3년. “帝命司農丞相里玄奘 賫璽書賜王曰 新羅委質 國家 朝貢不乏 爾與百濟 各宜戢兵 若更攻之 明年發兵 擊爾國矣”.

27)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분산배치전술로 이해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원 기록을 반영하고, 전투의 수행이 아닌 전쟁의 수행에서 전략이 세워졌다고 판단하여 삼도운용전략으로 命名하였음을 밝힌다 ; 송영대, 2015a.

28) 손무 著, 유동환 譯, 1999, 87쪽, 주석 15번.

29) 『오자』 料敵. “夫齊性剛 其國富 君臣驕奢而簡於細民 其政寬而祿不均 一陳兩心 前重後輕 故重而不堅 擊此之道 必三分之 獵其左右 脅而從之 其陳可壞”. 劉寅 直解, 成百曉·李蘭洙 譯註, 『譯註 孫武子直解 吳子直解』, 전통문화연구회, 2012, 403쪽.

타이르고 격려하여 거느리고 나아갔다. 의직이 대항하자 유신은 군사를 3갈래로 나누어 挾擊하였다. 백제의 군사가 패하여 달아나자 유신이 추격하여 거의 다 죽였다. 왕이 기뻐하여 사졸들에게 상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sup>30)</sup>

A-2. 가을 7월 9일에 金庾信 등이 黃山의 별판으로 진군하자 백제의 장군 堦伯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에 의지하여 3군데에 진영을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신 등은 군사를 3길로 나누어 4번을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여 병사들은 힘이 다 하였다.<sup>31)</sup>

A-1은 648년 3월에 있었던 요거성전투, A-2는 660년 7월에 있었던 황산별전투이다. 두 기록에서는 모두 三道로 나누어 싸웠다고 기록하였다. 이들은 모두 신라군이 백제군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군대를 분산하여 운용한 것에 해당한다. A-1은 신라 영토에서 일어난 전투이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 있었던 신라군이 익숙한 루트를 활용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반면 A-2는 백제 영토 내에서 백제가 事前에 진영을 구축한 상태에서 전투가 전개된 것이다.<sup>32)</sup> 백제의 진영에 맞춰 신라도 3도로 나누어 공격에 들어갔지만, 이미 險地를 선점한 백제군이었기에 쉽게 밀리지 않고 신라군에게 대응하였다. 신라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도로 군대를 나누어 운용하면서 백제군을 공격하여, 백제군 내부에서의 호응을 막으려고 하였다.<sup>33)</sup> 당시 신라군은 蘇定方과의 집결 때문에 신속하게 군대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백제는 그러한 신라의 다급한 대처에 익숙한 지형을 바탕으로 대응하였던 것이다. 결국 신라군은 盤屈과 官昌을 통한 돌격전술을 펼친 이후에야 황산별전투에서의 勝機를 잡을 수 있었다.

삼도운용전략은 군사 운용을 다각도로 전개시켜 승기를 잡기 위해 마련된 전략이었다. 아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개된 경우나 여러 곳의 적을 동시다발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되었다. 이 전략은 상대의 대응에 따라 成敗가 엇갈리는 면이 있었으며, 김유신도 삼도운용전략을 통해 승리한 적도 있었지만,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어려워 다른 전술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649년 石吐城 전투에서는 3군을 5도로 나누어 백제에게 요격한 사례도 있다.<sup>34)</sup> 다

30)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眞德王 2년. “三月 百濟將軍義直 侵西邊 陷腰車等一十餘城 王患之 命押督州都督庾信以謀之 庾信於是 訓勵士卒 將以發行 義直拒之 庾信分軍爲三道 夾擊之 百濟兵敗走 庾信追北 殺之幾盡 王悅賞賜士卒有差”.

3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 “秋七月九日 庾信等進軍於黃山之原 百濟將軍堦伯 擁兵而至 先據嶮 設三營以待 庾信等 分軍爲三道 四戰不利 士卒力竭”.

32) 계백이 설치한 3곳의 진영 즉 三營의 위치에 대해서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에 백제군 3영의 위치를 비정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간격이 있는 각각의 산성이 아닌 논산 청동리산성 곳곳에 진영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 이상훈, 2021, 89-93쪽.

33) 3도를 仁川里에서 黃山里로 가는 접근로 중에서 3곳을 설정하여 살펴보고 위치를 제시한 연구가 있다. 윤일영, 2011, 「황산별 전투: 黃山原·三營·三道の 위치, 戰鬪配置·經過·結果」, 『군사학연구』 9, 25-26쪽. 반면 3도라는 것을 세 방향으로 인지하고, 반드시 별개의 3곳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 이상훈, 2021, 95쪽.

만 이 경우에는 지난번의 삼도운용전략과 유사한 5도로 진군하여 요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승부를 내지 않아 양군의 인적 손실이 매우 컸다.<sup>35)</sup> 결국 반간계를 활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절에서 상세한 정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간첩 활용 전략

김유신은 間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다수 구사하였다. 『孫子兵法』 用間篇에 따르면 간첩은 크게 鄉間(因間)·內間·反間·死間·生間이 있다고 한다.<sup>36)</sup> 여기에서 향간은 적의 고장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고, 내간은 적의 벼슬아치를 포섭하여 첩자로 이용하는 것이며, 반간은 적의 간첩을 매수하거나 역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up>37)</sup> 김유신은 향간내간반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간첩 전략을 펼친 것이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38)</sup>

B-1. 김유신 등의 행렬이 楊陝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에게 물었더니 敵國의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에게 배와 비단을 주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고 가버렸다. 유신은 양오에 진영을 설치하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인문·양도 및 (김유신의) 아들 군승 등을 보내 당나라 진영에 가서 왕의 뜻으로 군량을 보냈음을 전하였다. 정방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하여 힘껏 싸울 수 없었다. 이에 군량을 얻게 되자 곧 당나라로 돌아갔다.<sup>39)</sup>

B-2. 租末岬이 틈을 엿보아 알려 말하였다. “지난번에 죄가 두려워 감히 똑바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유신이 저를 타일러 향후에 당신께 ‘나라의 흥망은 미리 알 수 없으니, 만약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그대는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내 그대의 나라에 의지하겠소.’ 라고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任子が 이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고, 조미갑은 두려워하고 물러갔다. 처벌을 기다린 지 몇 달 만에 임자가 그를 불러서 묻기를, “네가 지난번 이야기한 유신의 말이 어떠한 것이더냐?” 라고 하였다. 조미갑은 놀라 두려워하며 지난번에 말한 것과 같이 답하였다. 임자가 “네가 전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알았으니, 돌아가 그렇게 고하여도 좋다.” 고 말하였다. 마침내 돌아와 아울러 안팎 사정까지 이야

34)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太和二年秋八月 百濟將軍殷相 來攻石吐等七城 王命庾信及竹旨·陳春·天存等將軍 出禦之 分三軍爲五道 擊之 互相勝負 經旬不解 至於僵屍滿野 流血浮杵”.

35)李文基, 앞의 논문, 2016, 224쪽.

36) 『손자병법』 권11, 用間. “故用間有五 有鄉間·有內間·有反間·有死間·有生間 五間俱起 莫知其道 是謂神紀 人君之寶也 鄉間者 因其鄉人而用之 內間者 因其官人而用之 反間者 因其敵間而用之 死間者 為誑事于外 令吾間知之 而傳于敵 生間者 反報也”.

37) 劉寅 直解, 成百曉·李蘭洙 譯註, 앞의 책, 2012, 353~355쪽.

38) 기존 연구에서도 내간과 반간을 통해 신라가 간첩 활용 전술을 사용하였음을 밝힌 연구가 이루어졌다 ; 송영대, 2015a, 60-62쪽 ; 그렇지만 간첩의 활용은 개별 전투의 사례보다 전쟁의 측면에서 적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첩 활용 전략으로 파악하였다.

39)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庾信等行抵楊陝 見一老人問之 具悉敵國消息 賜之布帛 辭不受而去 庾信營楊陝 遣解漢語者仁問·良圖及子軍勝等 達唐營以王旨餽軍糧 定方以食盡兵疲 不能力戰 及得糧 便迴唐”.

기하였는데, 정말로 모두 다 자세하였다. 이에 (백제들) 병합할 계획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sup>40)</sup>

B-3. 마침내 왕에게 청하여 출병 날짜를 정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諜者인 승려 德昌이 사람을 시켜 (고구려)왕에게 (김유신의 출병 소식을) 알렸다. 왕은 이미 춘추의 맹세를 들은 데다가 또한 첩자의 말을 듣고 나니, 감히 다시 (춘추를) 억류하지 못하고 후하게 예우하여 돌려보냈다. (춘추가 고구려의) 국경을 벗어나자, 호송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군사를 청하려 왔던 것인데, 대왕께서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토지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대왕께 글을 올린 것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다.<sup>41)</sup>

B-4. 2년(649) 가을 8월에 백제장군 殷相이 石吐城 등 7성을 공격해 오니, 왕이 유신과 竹旨·陳春·天存 등 장군에게 명하여 나아가 그들을 막게 하였다. 三軍을 나누어 다섯 방면으로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서로의 승부가 열흘이 지나도록 나지 않았다. 었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고, 흐르는 피가 절굿공이를 띄울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道薩城 아래에 주둔하며 말을 쉬게 하고 군사들을 잘 먹여 다시 공격을 꾀하였다. 이때 물새가 동쪽에서 날아와 유신의 군막을 지나가자, 장수와 병사들이 이를 보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유신은 “이는 죽히 괴이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반드시 백제인이 염탐하러 올 것이니, 너희들은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체하고 감히 누구인지 물어보지 말라.” 고 말하였다. 또 사람을 시켜 진영 안을 돌아다니며, “진지를 굳게 지키며 움직이지 마라. 내일 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결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첩자가 이를 듣고 돌아가 은상에게 알렸다. 은상 등은 군사들의 증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유신 등은 일시에 분발하여 공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장군인 達率 正仲과 군사 100명을 사로잡았으며, 佐平 은상과 달솔 自堅 등 10명과 병졸 8,980명을 죽이고, 말 10,000필과 갑옷 1,800벌을 획득하였다. 그 밖의 (획득한) 각종 器械들도 이와 비슷하였다.<sup>42)</sup>

40)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租未坤伺間報曰 前者 畏罪不敢直言 其實 往新羅還來 庾信諭我 來告於君曰 邦國興亡 不可先知 若君國亡 則君依於我國 我國亡 則吾依於君國 任子聞之 嘿然無言 租未坤惶懼而退 待罪數月 任子喚而問之曰 汝前說庾信之言 若何 租未坤驚恐而對 如前所言 任子曰 爾所傳 我已悉知 可歸告之 遂來說兼及中外之事 丁寧詳悉 於是愈急并吞之謀”.

41)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於是 衆人曰 雖出萬死一生之中 敢不從將軍之令乎 遂請王 以定行期 時高句麗諜者浮屠德昌 使告於王 王前聞春秋盟辭 又聞諜者之言 不敢復留 厚禮而歸之 及出境 謂送者曰 吾欲釋憾於百濟 故來請師 大王不許之 而反求土地 此非臣所得專 嚮與大王書者 曷道死耳”.

42)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二年秋八月 百濟將軍殷相 來攻石吐等七城 王命庾信及竹旨·陳春·天存等將軍 出禦之 分三軍爲五道 擊之 互相勝負 經旬不解 至於僵屍滿野 流血浮杵 於是屯於道薩城下 歇馬餉士 以圖再舉 時有水鳥東飛 過庾信之幕 將士見之 以爲不祥 庾信曰 此不足怪也 謂衆曰 今日必有百濟人來謀 汝等佯不知 勿敢誰何 又使徇于軍中曰 堅壁不動 待明日援軍至 然後決戰 諜者聞之 歸報殷相 殷相等謂有加兵 不能不疑懼 於是庾信等一時奮擊 大克之 生獲將軍達率正仲·士卒一百人 斬佐平殷相·達率自堅等十人及卒八千九百八十人 獲馬一萬匹·鎧一千八百領 其他器械稱是 及歸還 路見百濟佐平正福與卒一千人來降 皆放之 任其所往 至京城 大王迎門 勞慰優厚”. 이와 유사한 맥락의 기사는 신라본기 제5 眞德王 3년조와 백제본기 제6 義慈王 9년조에서도 확인되나, 본고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김유신전」을 따른다. 해당 사건의 연대는 太和 2년으로 보아 648년으로 인지하기도 하지만, 「신라본기」와

김유신이 향간을 사용한 것은 B-1, 즉 662년에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달할 때의 상황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양오의 고구려 노인이 김유신에게 고구려의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sup>43)</sup> 이 노인이 당시 어떠한 사실들을 전해주었는지, 기록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세한 사항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고구려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던 고구려의 정세나 주변의 상황, 진군로 및 주요 지점의 지형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노인은 아무래도 고구려의 정치에 불만을 가진 인물로 볼 수 있으며, 고구려에 대한 반감 때문에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김유신에게 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의 內間計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로 B-2의 기록이 있다. 夫山縣令이었던 級飡 租未埤이 백제에 잡혀들어가 家奴가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신라와 백제를 오가면서 任子를 통해 백제의 사정을 김유신에게 전달하였다. 임자를 포섭하였다는 것은 신라측에서 백제 고위층을 통해 백제 내부의 정부를 수집하였다는 뜻이다. 이를 주도한 것이 김유신이었으며, 김유신은 백제 내부의 정황을 파악하여 군사를 움직이는 식으로 대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김유신의 임자 포섭은 내간계의 원리를 고스란히 적용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유신이 反間計를 사용한 사례는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하였던 기만전략의 사례 즉 김춘추 구출과 관련하여서도 김유신은 간첩을 활용하였다. B-3에 따르면 김유신이 선덕여왕에게 요청하여 군사 충돌 기일을 정하였고, 이를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이 알아채서, 사람을 시켜 보장왕에게 아뢰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김유신이 의도적으로 덕창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유신은 당시 김춘추와의 약속이 있었기에 국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국경 지역에는 상대국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간첩이 배치된 사례가 많았다. 김유신은 고구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것처럼 허장성세를 보인 것이다. 김유신의 의도대로 이 소식이 고구려에 전해지면서 김춘추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간첩의 존재를 상정하고 일부러 出兵을 크게 홍보하면서, 고구려의 내부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4)</sup>

B-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649년 8월 도살성 전투에서도 반간계가 활용되었다. 도살성 전투는 백제군이 간첩을 보낼 것을 미리 알아채고, 이를 역이용하여 승리한 사례에 해당한다. 물새[水鳥]의 움직임을 통해 간첩이 올 것을 알아챘다고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고,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나 백제나 서로에게 간첩을 보내 내부 정담을

---

「백제본기」의 연대와 대조하여 649년으로 파악하였다 ; 정구복 외, 2012, 672쪽, 주석 1번.

43) 金瑛洙, 2007, 58쪽, 주석 76번.

44) 이 당시 고구려의 선도해를 신라가 진작에 고구려에 심어 놓은 내간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본 연구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김춘추가 고구려행에 앞서 사전에 첩자 파견이나 고구려 내부 주요 인사와 사전 접촉을 하는 식의 첩보 활동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金瑛洙, 2007, 54쪽 ; 본 연구에서는 선도해의 경우 김유신에게 협조적이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간첩 사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간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하고 있던 상황을 역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대에게 군사적 변화가 있으면 전쟁의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이고, 守城戰을 하고 있던 김유신은 역정보를 이용하여 백제군의 軍心을 동요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러한 김유신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하였고, 신라군에 압도될 것을 두려워하는 백제군을 향해 성문을 열고 일시적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하였다. 백제군의 입장에서 장기간의 원정으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공격이 오니 혼란스러웠던 것이고, 이는 결국 백제군이 대패를 당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sup>45)</sup>

이 외에도 「김유신전」에서 661년 봄과 6월 기록 사이에 仲秋節 즉 秋夕 때의 기록이 삽입되어있다. 여기에서는 김유신이 추석 저녁에 자제들과 대문 밖에 있는데, 서쪽에서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고구려 간첩임을 눈치챘다고 하였다. 김유신이 그 간첩을 마주하였는데, 간첩임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책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위로하고 돌려보냈다. 이로 인하여 고구려 사람들은 신라가 小國이긴 하나 김유신이 재상으로 있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46)</sup>

이러한 기록은 삼국시대에 활발한 첩보전이 오고 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앞서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라 王京에까지 고구려 간첩이 잠입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유신은 이러한 간첩의 배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에 태연하게 행동하였다. 간첩을 붙잡기보다 여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며, 도리어 고구려인들이 신라를 두려워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이처럼 삼국시대에는 다양한 간첩이 활약하고 있었다. 김유신과 관련된 기록에서는 고구려나 백제에서 간첩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라 역시도 간첩을 다수 파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간첩을 통한 정보전이 활발하였던 시기였기에, 김유신은 간첩을 활용한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이고, 특히나 역정보를 활용한 반간계를 통해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었다. 아울러 상대국의 사람을 간첩으로 활용하는 향간과 내간을 이용하여 정세를 파악하고 전쟁에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 Ⅲ. 김유신의 전투 전개와 전술 운용

전략과 전술은 그 부분이 쉽지 않다. 전략은 전술로 구성되고, 전술은 전략을 기초로 선택

45) 기존 연구에서도 당시 김유신이 전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타개책으로 첩자를 활용한 것은 그가 군사에 있어서 첩자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 金瑛洙, 2007, 56쪽.

46)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庾信嘗以中秋夜 領子弟立大門外 忽有人從西來 庾信知高句麗謀者 呼使之前曰 而國有底事乎 其人俯而不敢對 庾信曰 無畏也 但以實告 又不言 庾信告之曰 吾國王 上不違天意 下不失人心 百姓欣然 皆樂其業 今爾見之 往告而國人 遂慰送之 麗人聞之曰 新羅雖小國 庾信爲相 不可輕也” .

되거나 수정되기 때문에 진정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sup>47)</sup> 현대 군사학에서 전술이란 군단급 이하의 전술세대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투력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과학과 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8)</sup> 이처럼 전략과 전술은 큰 틀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보니 그 구분이 쉽지 않다. 그렇지만 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전략은 전쟁의 수행에서 채택되었던 방책이며, 전술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전투의 승리를 위해 수행하였던 방법들을 전술로 규정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김유신은 삼국통일기는 물론 그 이전부터 여러 전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운용하였다. 김유신은 젊은 시절에 참전하였던 낭비성전투를 비롯하여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고, 이 때마다 승리하며 공을 세웠다. 이번 절에서는 김유신의 전투 전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서 운용하였던 전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신의 전술로는 돌격전술·기습전술·위장전술·포위전술·역습전술을 거론할 수 있다.

## 1. 돌격전술

김유신의 突擊戰術로는 크게 3가지 사례를 거론할 수 있다. 629년의 낭비성전투, 647년의 무산성 구원 전투, 660년 황산벌전투가 이에 해당한다. 기록의 양상으로 보았을 때 상세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전투 중에 돌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1. 건복 46년 己丑(629) 가을 8월에 (진평)왕이 伊滄 任末里, 波珍滄 龍春·白龍, 蘇判 大因·舒玄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娘臂城을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인들이 군사를 내어 갑자기 습격해와 우리 편이 패하여 죽은 자가 많았고, 군사들[衆]의 사기가 꺾여 다시 싸울 마음이 없었다. 유신이 이때 中幢主였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군사들이 패하였습니다. 제가 평생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투에 임하여 용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저 듣건대, ‘옷깃을 잡고 흔들면, 갓옷이 바로 펴지고, 벼리를 끌어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 고 하였으니, 제가 벼리와 옷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말을 타고 검을 빼어들고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끌고 돌아왔다. 우리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승세를 타 분발하여 공격하여 5천여 명의 목을 베고 1,000명을 사로잡았다. 성안의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 항복하였다.<sup>49)</sup>

47) B.A.프리드먼 著, 진중근·신의철·장찬규·모영진 共譯, 2023, 22쪽.

48) 성형권, 2023, 50쪽.

49)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己丑秋八月 王遣伊滄任末里 波珍滄龍春·白龍 蘇判大因·舒玄等 率兵攻高句麗娘臂城 麗人出兵逆擊之 吾人失利 死者衆多 衆心折衄 無復鬪心 庾信時爲中幢主 進於父前 脫胄而告曰 我兵敗北 吾平生以忠孝自期 臨戰不可不勇 盖聞 振領而裘正 提綱而網張 吾其爲綱領乎 迺跨馬拔劍 跳坑出入賊陣 斬將軍 提其首而來 我軍見之 乘勝奮擊 斬殺五千餘級 生擒一千人 城中兇懼無敢抗 皆出降”.

C-2. 겨울 10월에 백제군이 와서 茂山城, 甘勿城, 桐岑城 등 3성을 포위하자, (진덕)왕은 유신을 보내 보병과 기병 10,000을 거느리고 막게 하였다. (백제군과) 힘써 싸워 (신라군의) 기운이 다 떨어졌다. 유신이 丕寧子에게 말하기를, “오늘 일이 다급해졌다. 네가 아니면 누가 군사들의 마음 [衆心]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비령자가 절하며 말하기를,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마침내 적을 향해 나아가니, 아들 擧眞과 家奴인 舍節이 (그를) 따라 (적의) 검과 창에 부딪치며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군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감동받아 고무되어 앞다퉈 나아가 賊兵을 크게 물리치고 3천여 명을 목 베었다.<sup>50)</sup>

C-3. 장군 欽純이 아들 盤屈에게 말하기를, “신하된 자로서는 충성만한 것이 없고 자식으로서도 효도만한 것이 없다.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두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 라고 하였다. 반굴이 말하기를, “삼가 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곧 적진으로 뛰어들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左將軍 品日이 아들 官狀또는 官昌이라고도 하였다.을 불러서 말 앞에 세우고 여러 장수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내 아들은 나이가 겨우 열여섯이나 의지와 기백이 자못 용감하니, 오늘의 싸움에서 능히 三軍의 모범이 되리라!” 라고 하였다. 관장이 “예!” 라고 하고는 갑옷을 입힌 말을 타고 창 한 자루를 들고서 곧바로 적진으로 달려갔으나 적에게 사로잡혀서 산채로 계백에게 끌려갔다. 계백이 투구를 벗기게 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어리고 용감함을 아껴서 차마 해치지 못하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신라에게 대적할 수 없겠구나. 소년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壯士들이랴!” 라 하고 살려서 보내도록 하였다. 관장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제가 적진 속으로 들어가 장수를 베지도 못하고 깃발을 뽑아오지도 못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쥐어 마시고 다시 적진으로 가서 날째 싸웠는데, 계백이 사로잡아 머리를 베고 말안장에 매달아서 보냈다. 품일이 그 머리를 붙잡고 흐르는 피에 옷소매를 적시며 말하기를, “내 아이의 얼굴이 살아있는 것 같구나!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였다. 三軍이 (이를) 보고 슬퍼하고 한탄하여 죽을 마음을 먹고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진격하자 백제의 무리가 크게 패하였다. 계백은 죽고, 佐平 忠常과 常永 등 20여 명은 사로잡혔다.<sup>51)</sup>

C-1은 629년 8월에 일어난 낭비성전투로, 이는 김유신이 처음으로 참전한 전투에 해당한다.<sup>52)</sup> 김유신은 아버지 김서현과 함께 전투에 출전하였으며, 고구려군을 상대로 공을 세워야

50)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冬十月 百濟兵來圍茂山·甘勿·桐岑等三城 王遣庾信率步騎一萬拒之 苦戰氣竭 庾信謂丕寧子曰 今日之事急矣 非子 誰能激衆心乎 丕寧子拜曰 敢不惟命之從 遂赴敵 子擧眞及家奴舍節隨之 突劔戟 力戰死之 軍士望之 感勵爭進 大敗賊兵 斬首三千餘級” .

5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太宗武烈王 7년. “將軍欽純謂子盤屈曰 爲臣莫若忠 爲子莫若孝 見危致命 忠孝兩全 盤屈曰 謹聞命矣 乃入陣 力戰死 左將軍品日 喚子官狀[-云官昌] 立於馬前 指諸將曰 吾兒年纔十六 志氣頗勇 今日之役 能爲三軍標的乎 △△官狀曰 唯 以甲馬單槍 徑赴敵陣 爲賊所擒 生致塔伯 塔伯俛脫胄 愛其少且勇 不忍加害 乃嘆曰 新羅不可敵也 少年尙如此 況壯士乎 乃許生還 官狀告父曰 吾入敵中 不能斬將搴旗者 非畏死也 言訖 以手掬井水飲之 更向敵陣疾鬪 塔伯擒斬首 繫馬鞍以送之 品日執其首 流血濕袂 曰 吾兒面目如生 能死於王事 幸矣 三軍見之 慷慨有死志 鼓噪進擊 百濟衆大敗 塔伯死之 虜佐平忠常·常永等二十餘人” .

52) 낭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논쟁이 되고 있다. 낭비성의 위치를 포천 반월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 ; 윤성호, 2019,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경계』 110, 181쪽 ; 이와 달리 『삼국사기』와 『三國史節要』·『新增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김유신은 스스로 적진으로 돌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당시 김유신이 어느 정도 병력과 함께 돌격하였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김유신이 적진으로 돌격하고 복귀하는 성과를 올렸고, 이를 계기로 신라군의 사기가 올라가 승리하게 되었다. 지속적인 전투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에서 수백의 병사가 함께 움직여야한다. 즉 김유신은 홀로 적진으로 돌격하였기보다 소규모의 부대로 돌격에 성공하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53)</sup>

돌격전술은 상대방의 진영으로 기병을 이끌고 가서 적진을 붕괴하는 전술에 해당한다. 보병을 위주로 운영되기도 하였지만 기병이 널리 사용되면서, 기병을 위주로 돌격이 이루어졌다. 7세기 경에 이르러서는 돌격에 대한 대응 즉 對騎兵戰이 크게 발달하였다. 대기병전은 長槍이나 床弩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적군의 돌격을 저지하여 아군의 방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병전이 발달한 이후에는 돌격은 위험성을 크게 갖는 전술이었지만, 성공하게 될 경우 敵陣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득이 큰 전술이었다. 김유신도 이를 노려 적진으로 돌격하고, 군사적인 성과를 거두어 귀환한 것이었다. 본인의 경험 때문인지, 돌격의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이후 김유신은 돌격전술을 크게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C-2에 따르면 비령자와 거진, 합절은 모두 돌격으로 나아갔고,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 군사들이 감명을 받게 하였다. 사실 기록만 봐서는 돌격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적진을 향해 들어가서 싸웠기 때문에 돌격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단순히 비령자만 진격한 것이 아닌 아들과 家奴까지 함께 나섰다는 점으로 볼 때, 비령자 가문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싸우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투에 나선 한 가문이 모두 적진으로 돌격하여 장렬하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모습에 여러 군사들이 감명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4)</sup>

C-3은 660년 7월 9일 황산벌전투에 대한 내용으로, 앞서 살펴본 A-2에 이어지는 기록이다. 반굴과 관창은 기록 상으로는 單騎로 돌격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도 그러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전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기보다는 소규모 병력을 이루어서 돌격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크다. 물론 승리를 위하기보다 죽음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려는 목적이 강했겠지만, 백제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병력이 투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

---

비교해 볼 때 낭비성은 청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낭비성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부연리 산41에 소재한 743m의 산성으로 비정한 것이다 ; 이도학, 2023,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 132-135쪽.

53) 당시 김유신의 행적에 대해 김유신 열전의 저본 자료인 『行錄』의 편찬 의도를 고려하였을 때, 김유신의 위대성을 강조하면서 행적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김강훈, 2020, 183쪽.

54) 비령자와 거진, 합절이 기록된 『삼국사기』 열전7의 내용은 국가의 모든 가치 가운데 가장 상위에 두는 강렬한 국가의식과 불굴의 전투의지, 자기희생 정신과 순국 의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신라인들에게 전해졌고, 신라인들의 의식 세계에 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강중훈, 2004, 149쪽.

을 것으로 보인다.<sup>55)</sup> 또한 관창에 대한 기록을 보았을 때, 이들이 重武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계백이 관창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투구를 벗겼다는 점에서도 무장은 단단히 하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甲馬單槍으로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사실 역시도 말갑옷을 갖춘 重裝騎兵임을 의미한다. 즉 반굴이나 관창은 郎徒들과 함께 백제군을 향해 돌격전술을 펼쳤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유신은 돌격전술을 통해 성공하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의 부하들에게도 戰勢의 역전을 위해 돌격전술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돌격전술은 적의 진영을 흐트러트리고, 군심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전술이다. 하지만 이 당시는 대기병전이 발달하였다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돌격전술 중에 목숨을 바치는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의 돌격전술은 죽음을 각오한 돌격으로 아군의 사기 고양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희생을 강조하다보니, 기록에서는 몇몇 인물 혹은 소수의 사람이 돌격한 것으로 기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2. 기습전술

김유신의 奇襲戰術로는 648년 옥문곡전투와 664년 사비성전투의 사례를 거론할 수 있다. 다만 이 중에서 사비성전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만 당시 전투의 정황으로 볼 때 기습전술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할 수 있다.

D-1. 마침내 (유신) 州의 군사[州兵]를 가려 뽑아 훈련시켜 적에게 나아가 大梁城(대야성) 밖에 이르니, 백제가 (이에) 맞서 대항하였다. 일부러 패해 도주하며 이기지 못한 척하고 玉門谷에 이르렀다. 백제가 가볍게 여겨 대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자, 伏兵을 일으켜 그 앞과 뒤를 공격하여 크게 물리쳐 백제 장군 8인을 사로잡고, 1,000명을 목 베거나 포로로 잡았다. 이에 사람을 시켜 백제 장군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軍主 品釋과 그의 아내 金氏의 遺骸가 너희 나라 감옥에 묻혀 있고, 지금 너희 裨將 8명이 나에게 잡혀 영금영금 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나는 여우나 표범도 죽을 때에는 자기가 태어난 굴이 있는 언덕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말을 생각하여,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죽은 두 사람의 유해를 보내 살아 있는 8명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였다. 백제 仲常[또는 忠常이라고도 쓴대] 佐平이 왕에게 말하기를, “신라인의 유해를 남겨 두어도 이로울 게 전혀 없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약 신라인이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장군) 8명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음이 저들에게 있고 [曲在彼], 사리에 맞음이 우리에게 있으니[直在我],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품석 부부의 유해를 파내 관에 넣어 보냈다. 유신이 말하기를 “잇사귀 하나가 떨어진다고 하여도 무성한 수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티끌 하나가 쌓인다고 하여도 큰 산에 아무런

55) 기존 연구에서는 ‘甲馬單槍’이라는 표현을 통해 單騎突擊戰術로 파악하였다 ; 송영대, 2015a, 58쪽 ; 기록 상으로는 그러하지만, 전투의 양상에 영향을 주려면 홀로 돌격하기보다도 소규모의 병력으로 돌격을 하여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화랑과 낭도가 함께 돌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보탬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고는 8명이 살아 (백제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sup>56)</sup>

D-2. 麟德 원년인 갑자년(664) 3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또 사비성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다. 熊州 都督이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을 내어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여러 날 동안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를 가려 사람과 물건을 알아볼 수 없었고, 이런 까닭에 싸울 수 없었다. (웅진도독부에서) 伯山을 보내 이 일을 알려오니, 유신이 백산에게 은밀한 계책을 주어서 반란군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였다.<sup>57)</sup>

D-1은 648년에 일어난 옥문곡전투에 대한 기록이다. 이는 「김유신전」은 물론 「百濟本紀」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에서는 648년 4월에 백제군이 玉門谷으로 進軍하여 김유신과 2번 싸워 대패하였다고 기록하였다.<sup>58)</sup> D-1에 따르면 신라군은 거짓 패배하여 옥문곡으로 후퇴하였고, 백제가 이를 추격하자 伏兵을 동원하여 승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 성과로 신라군은 대야성의 軍主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의 유골과 8명의 백제 장군을 교환했다고 기재하였다.

D-1과 「백제본기」는 서로의 진군 주체가 엇갈리게 기술되었다. 「백제본기」에서는 백제군이 진군하였다고 밝혔음에 비해, D-1에서는 신라군이 대량성 즉 대야성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라본기」의 기록을 보아야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앞서 제시한대로 A-1에 기재된 「신라본기」에 따르면 648년 3월에 백제의 義直이 신라 서쪽 변경을 침공하여 腰車城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고, 이에 맞서 押督州 都督 김유신이 대응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sup>59)</sup> 여기에서 김유신이 대응할 때 사용한 것이 앞서 언급한 삼도운용전략이었다. 당시 삼도운용전략을 통해 백제군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옥문곡으로 백제군을 유인하여 기습전술을 펼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백제본기」에서는 삼도운용전략으로 패배한 1회의 전투와 옥문곡에서의 패배 1회를 합쳐 2회의 대패가 있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백제군은 요거성 등 10여 성을 공략하여 승기를 잡은 상황이었다. 이때 김유신은 백제의 군대가 승리에 취해있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백제군을 유리한 지형으로 끌어들이어 격파하자는

56)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遂簡練州兵赴敵 至大梁城外 百濟逆拒之 佯北不勝 至玉門谷 百濟輕之 大率衆來 伏發擊其前後 大敗之 獲百濟將軍八人 斬獲一千級 於是 使告百濟將軍曰 我軍主品釋及其妻金氏之骨 埋於爾國獄中 今爾稗將八人 見捉於我 匍匐請命 我以狐豹首丘山之意 未忍殺之 今爾送死二人之骨 易生八人 可乎 百濟仲常[一作忠常]佐平言於王曰 羅人骸骨 留之無益 可以送之 若羅人失信 不還我八人 則曲在彼 直在我 何患之有 乃掘品釋夫妻之骨 櫛而送之 庾信曰 一葉落 茂林無所損 一塵集 大山無所增 許八人生還” .

57) 『삼국사기』 권43, 열전3, 金庾信 下. “麟德元年甲子三月 百濟餘衆 又聚泗沘城反叛 熊州都督發所管兵士攻之 累日霧塞 不辨人物 是故不能戰 使伯山來告之 庾信授之陰謀 以克之” .

58)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義慈王 8년. “夏四月 進軍於玉門谷 新羅將軍庾信逆之 再戰大敗之” .

59)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眞德王 2년. “三月 百濟將軍義直侵西邊 陷腰車等一十餘城 王患之 命押督州都督庾信以謀之 庾信於是 訓勵士卒 將以發行 義直拒之 庾信分軍爲三道 夾擊之 百濟兵敗走 庾信追北 殺之幾盡 王悅 賞賜士卒有差” .

전술을 취하게 되었다. 그 장소로 설정한 곳이 옥문곡이었다.<sup>60)</sup> 옥문곡에 미리 복병을 배치하고, 거짓 패배하여 의도적으로 옥문곡으로 퇴각하였다.<sup>61)</sup> 백제군은 신라군을 전멸시킬 기회라고 생각하여 추격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유신에게 현혹되어 유인된 셈이었다.<sup>62)</sup> 당시 백제는 신라군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생각에 원정군을 모두 동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신라군은 지형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백제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당시 원정군을 이끌고 있던 주요 장군들을 거의 모두 사로잡았다는 것이며, 이를 이용하여 유리한 협상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D-1은 이러한 김유신의 戰功을 높이 사서 옥문곡전투를 기록하여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여기에서 김품석과 고타소량의 시신을 인계받았다는 것은 김춘추의 복수를 해주었다는 의미이기에, 이를 더욱 강조하여 기록한 것이다.

김유신의 기습전술은 D-2에 기록된 664년 3월 사비성전투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라본기」에서도 泗泚山城의 반란을 진압하였다는 간략한 기록이 확인된다.<sup>63)</sup> 사비성전투는 당의 응진도독부에서 진압해야 하였던 싸움이었지만, 쉽사리 진압하지 못하여 신라군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sup>64)</sup> 기록만 봐서는 당시 김유신의 전술을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안개가 짙게 끼었다는 점이 주요 힌트가 된다. 실제로 부여 일대는 相對濕度가 전 관측지점이 연평균 75% 이상으로 충청남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sup>65)</sup>

부여는 백마강을 끼고 있다보니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 신라군은 백제군과 사비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전투를 하면서 지형 정보를 파악하였고, 사비성도 계속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는 더이상 낮은 지역이 아니었다. 김유신은 백제군이 안개로 인하여 신라군이 쉬이 접근하지 못하기에 방심한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진입이 쉬운 쪽으로 기습 공격하라고 모책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이용하여 응주도독의 군대가 백제군을 공격하였고, 결국 김유신의 계책 덕분에 승리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0) 옥문곡을 『三國遺事』에 기록된 경주시 서쪽 건천읍에 있는 富山 아래에 있었다던 女根谷과 유사한 곳으로 볼 수도 있다 ; 『삼국유사』 권1, 기이1, 善德王 知幾三事. “二於靈廟寺玉門池 冬月衆蛙集鳴三四日 國人恠之問於王 王急命角干闕川·弼吞等鍊精兵二千人 速去西郊問女根谷 必有賊兵掩取殺之 二角干既受命各率千人問西郊 富山下果有女根谷 百濟兵五百人來藏於彼並取殺之 百濟將軍弓召者藏於南山嶺石上又圍而射之殪 又有後兵一千二百人來亦擊而殺之一無子遺”.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야성과의 거리 등을 들어 서로 다른 곳으로 보고 있다 ; 金榮官, 2010, 140쪽, 주석 114번.

61) 옥문곡의 위치로 경북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지역으로 비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 李文基, 2016, 221쪽, 61번 ; 성주 동쪽 인근 汝斤乃의 경우 지명의 음운이 같은 것이 주목되었지만, 지리적 조건이 맞지 않고 대야성으로부터도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가야면 구원리 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 장창은, 2019, 318쪽.

62) 李文基, 2016, 222쪽.

6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4년. “三月 百濟殘衆據泗泚山城叛 熊州都督發兵 攻破之”.

64) 김수태, 2018, 95쪽.

65) 扶餘郡誌編纂委員會, 1987, 34쪽.

기습전술은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공격하는 것이 주안점에 해당한다. 648년 옥문곡전투는 백제군이 신라군의 계책에 빠져 거짓승리에 자만하여 추격하다가 되려 신라군의 기습으로 대패를 하게 된 사례이다. 664년 사비성전투는 김유신이 직접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안개를 역이용하여 기습하는 전술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김유신은 적의 의표를 찌르는 전술로 승리를 거두어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 3. 위장전술

偽裝戰術은 아군의 형세를 숨겨서 적이 속게 만들고, 이를 역이용하여 공격하여 승리하는 전술을 의미한다. 김유신은 647년 비담과 염종의 난에서 위장전술로 승리를 하였으며, 660년에는 백제군으로 위장하여 당군을 공격하자는 계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E-1. 비담 등은 明活城에 주둔하고, 왕의 군사는 月城에다 陣營을 구축하여 10일 동안 공격과 방어를 계속하였으나 승패를 가리지 못하였다. 자정 무렵[丙夜]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비담 등이 군사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피를 흘릴 일이 생긴다고 하니, 이는 아마 女主가 패할 징조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군사들의 환호성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대왕이 듣고 매우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중략)……이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실어 날렸는데,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날 사람을 시켜 길거리에서, “어제 떨어졌던 별이 다시 올라갔다.” 라고 말을 전하게 하여, 賊軍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흰 말을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지냈다.……(중략)……이에 여러 장군과 군사들을 독려해 용기를 내어 치게 하니, 비담 등이 패하여 달아나자 추격하여 목을 베고 九族을 죽였다.<sup>66)</sup>

E-2. 당나라 사람들은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자, 사비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침략하려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우리 왕이 이를 알고서 군신들을 불러 대책을 물었다. 多美公이 나가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백제 사람인 것처럼 속이게 하여, 그들의 옷을 입고 마치 적의 무리인 양 행동하도록 한다면 당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과 싸운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유신이 말하길, “이 말은 취할 만하니 청컨대 이를 따르소서.” 라고 하였다.……(중략)……당나라 사람들이 염담하여 우리가 대비하고 있음을 알고는, 백제 왕과 신료 93명, 졸(卒) 20,000명을 붙잡아 9월 3일 사비에서 배를 띄워 돌아갔다. 郎將 劉仁願 등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sup>67)</sup>

66) 『삼국사기』 권41, 열전1, 金庾信 上. “十六年丁未 是善德王末年 真德王元年也 大臣毗曇·廉宗 謂女主不能善理舉兵欲廢之 王自內禦之 毗曇等屯於明活城 王師營於月城 攻守十日 不解丙夜 大星落於月城 毗曇等謂士卒曰 吾聞落星之下 必有流血 此殆女主敗績之兆也 士卒呼吼 聲振天地 大王聞之 恐懼失次……(中略)……乃造偶人 抱大載於風鳶而颺之 若上天然 翌日 使人傳言於路曰 昨夜落星還上 使賊軍疑焉 又刑白馬 祭於落星之地……(中略)……於是 督諸將卒 奮擊之 毗曇等敗走 追斬之 夷九族”.

67)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唐人既滅百濟 營於泗泚之丘 陰謀侵新羅 我王知之 召羣臣問策 多美公進曰 令我民詐爲百濟之人 服其服 若欲爲賊者 唐人必擊之 因與之戰 可以得志

E-1에서 확인되는 647년 비담과 염종의 난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김유신전」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 「신라본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짧게 기술된 것에 비해,<sup>68)</sup> 「김유신전」 즉 E-1에서는 상세한 내용이 전하고 있다. 고대인들에게吉凶은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인지되었다. 중국 정사의 五行志도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길흉을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과 관련되는지 해석한 것이다.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로부터 불길한 징조로 일컬어졌으며, 특히나 월성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당시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담과 염종은 여왕 통치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으며,<sup>69)</sup> 별이 떨어졌다는 징조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에 이를 크게 활용하였던 것이다.

비담과 염종의 발언은 선덕여왕과 김유신의 군대에 불리하게 작용될 소지가 컸다. 그렇지만 김유신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즉 별이 떨어진 상황을 위장하여, 도리어 아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수를 쓴 것이었다. 불타는 허수아비를 매단 연을 올려 보내면서, 서라벌의 사람들이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대로 통하게 되었다. 비담과 염종의 주장과 배치되는 일이 지상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고, 도리어 길흉이 轉換되었다고 인지하게 되어 김유신의 군대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이었다. 김유신은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방의 사기를 내리고, 아군의 사기를 끌어 올려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이 제사 또한 하늘과 자신이 통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군의 사기를 끌어 올리려는 목적 때문에 수행한 것이었다.

김유신은 이처럼 자연 현상과 적군의 상황을 역이용하여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전환하는 작전을 자주 펼쳤다. 앞선 사례 이외에 E-2에서 확인되는 660년 백제군으로 위장하여 당군을 공격하자는 계획을 펼친 것도 유사한 위장전술의 사례로 거론할 수 있다. 당군은 고구려 정복을 위하여 백제를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에 나당전쟁까지 치른 것을 보아서 고구려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욕이 이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馮師訓碑文」에서는 659년에 蘇定方이 雞林道大總管으로 제수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를 통해 당이 신라를 정복할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70)</sup> 위의 기록은 김유신이 당의 정복 야욕을 일찍부터 눈치를 챘고, 이런 상황에서 당의 시선을 분산시켜야한다는 생각에서 다미공의 계책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백제의 영역에서는 조국회복전쟁이 줄기차게 전개되었다.<sup>71)</sup> 본격적으로 백제

矣 庾信曰 斯言可取 請從之……(中略)……唐人諜知我有備 虜百濟王及臣寮九十三人·卒二萬人以九月三日 自泗泚泛船而歸 留郎將劉仁願等 鎮守之” .

68)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善德王 16년. “十六年 春正月 毗曇·廉宗等謂 女主不能善理 因謀叛擧兵 不克”

69) 김명준, 2013, 15~16쪽.

70) 이민수, 2019, 383~384쪽.

71) 일반적으로 조국회복전쟁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백제부흥운동이라 일컫는 사례가 많다. 하

의 조국회복전쟁이 전개되기 이전에, 신라로서는 당의 시선을 분산시켜 신라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백제인의 옷을 입고 당에게 저항하는 연출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신라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보니 상세한 내역을 알 수 없다. 다만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을 중심으로 백제인으로 행세하는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을 통해 다양한 사실들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망국의 한을 가진 백제인의 저항이 당에 집중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본격적인 조국회복전쟁의 기반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당은 신라와의 협조를 계속 이어 나가야 했으며, 백제 멸망 직후 신라마저 정복하려는 야욕을 스스로 거둘 수밖에 없었다.

#### 4. 포위전술

전쟁에서 包圍는 한 쪽의 군대가 다른 쪽의 군대의 사방을 에워싸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위하는 측은 守勢인 쪽보다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야 포위전술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포위전술은 野戰에서 수행되는 사례도 있지만, 다수는 守城하는 방어측을 상대하는 사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김유신은 여러 攻城戰을 수행하였지만, 포위전술을 펼친 기록은 많지 않다. 다만 661년 웅산성 전투에서 포위를 펼친 사례가 있다. 「김유신전」에 따르면 문무왕의 군대가 南川州에 이르렀을 때, 당군의 劉仁願은 사비에서 배를 태워 鞋浦에 이르러 하륙하여 남천주에 주둔하였다고 한다. 이때 백제의 군대가 瓮山城에 주둔하여 진격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김유신이 군대를 진격하여 성을 포위하여 항복을 권유하였지만, 백제군은 싸울지언정 항복하지 않겠다고 저항하였다. 결국 김유신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쳐서 공격하였으며, 문무왕은 이를 바라보며 군대를 격려하여 승리하게 되었다.<sup>72)</sup> 「신라본기」에서는 9월 25일에 웅산성을 포위하고, 27일에 大柵을 불태워 수천명을 죽여 항복시켰다고 기록하였다.<sup>73)</sup>

지만 ‘復興’은 ‘重興’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한 振興이나 中興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국권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지칭한다면 祖國回復으로 명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祖國回復戰爭으로 명명하였다 ; 이도학, 2010, 326~330쪽.

72)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中. “於是文武大王率庾信·仁問·文訓等發大兵向高句麗行次南川州鎮守劉仁願以所領兵自泗泚泛船至鞋浦下陸亦營於南川州時有司報前路有百濟殘賊屯聚瓮山城遮路不可直前於是庾信以兵進而圍城使人近城下與賊將語曰而國不翼致大國之討順命者賞不順命者戮今汝等獨守孤城欲何爲乎終必塗地不如出降非獨存命富貴可期也賊高聲唱曰雖叢爾小城兵食俱足士卒義勇寧爲死戰誓不生降庾信笑曰窮鳥困獸猶知自救此之謂也乃揮旗鳴鼓攻之大王登高見戰士淚語激勵之士皆奮突鋒刃不顧九月二十七日城陷捉賊將戮之放其民論功賞賚將士劉仁願亦分絹有差於是饗士秣馬欲往會唐兵”.

73)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원년. “二十五日進軍圍甕山城至二十七日先燒大柵斬殺數千人遂降之論功賜角干伊滄爲摠管者劍迺滄·波珍滄·大阿滄爲摠管者戟已下各一品位”

조국회복전쟁을 수행하던 백제군은 신라의 진로를 가로막았다.<sup>74)</sup> 이때 김유신은 먼저 투항을 권유하였다. 투항의 권유는 안전하고 손쉽게 지나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의 軍勢와 人心을 꺾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투항의 권유를 들은 상대방은 여기에 바로 응하지 않지만, 투항 권유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상대방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여기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김유신은 이를 노려서 먼저 투항을 권유하였던 것이다.

이후 김유신은 웅산성을 포위한 상태에서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였다. 포위하여 공격하기만 하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방어측은 상대의 공격을 예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기 때문에,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 攻者는 防者의 입장에서 방어가 우세한 지점과 미비한 지점을 파악하여, 어떻게 공격해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단기간에 전투를 끝낼 것인지 고찰해야 한다. 수성전은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를 통해 공격측의 경우도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는 사례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결국 대책 즉 큰 목적의 방비가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여기에 화재를 일으켜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목적은 상대의 공격을 막고 아군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불길이 방어측 전체를 에워싸는 역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김유신은 이를 노렸던 것이고, 결국 백제군의 방어가 무너지자 포위하던 군대를 성내로 진격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포위전술은 시간과 인력의 소요가 심할 수도 있지만, 상대의 병력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큰 전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5. 역습전술

逆襲은 상대의 공격에 맞서 거꾸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추격하면서 공격하는 적에게 맞서서 반격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역습은 사전에 전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하며, 퇴각 시에도 질서정연하고 전투에 임할 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가능하다. 역습은 상대의 공격 시점과 장소 등을 사전에 모두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도 계획해야 가능한 전술이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익숙한 지형에서 수행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상대방의 진영에 허술한 틈이 생기거나, 상대의 공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역습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역습전술은 662년 김유신의 군량수송작전 이후 신라군의 퇴각 때 역습을 통해 고구려의 군대를 공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 꼽을 수 있다. 「김유신전」에 따르면 김유신은 蘇定方이 평양을 공격하였을 때 군량이 부족한 상황에 처했다보니, 문무왕의 명령을 받아 군량을 수송하기 위하여 金仁問·眞服·金良圖 등 9명의 장군과 평양까지 진군하였다고 하였다. 군량을 받은 소정방은 식량이 떨어지고 군사가 피곤하여 당으로 귀국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군

74) 당시 신라가 진격 방향을 바꾸어서 웅산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 백제와 당의 협상 분위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김병남, 2013, 63쪽.

사를 매복하여 신라군이 돌아가는 길에 공격하고자 하였다. 김유신은 북과 북채를 모든 소의 허리와 꼬리에 매달아 떨 때마다 소리를 내게 하고, 땀나무를 쌓아 태워 연기와 불이 끊이지 않게 하고 밤중에 韃河 주변에서 군사를 쉬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이를 알고 추격하자, 김유신은 萬弩를 발사하고 여러 幢의 장병을 독려하고 나누어 출발하여 역습하였다. 결국 장군 1명을 사로잡고 1만 여 명의 목을 베는 등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sup>75)</sup> 『신라본기』에서는 662년 1월에 수레 2천여 대에 쌀 4,000석과 조 22,000석을 평양으로 운반하게 시켰다. 소정방이 퇴각한 이후에 김유신은 군대를 이끌고 瓢川을 건넜는데, 고구려 군대가 추격하자 군대를 되돌려 맞서 싸워 1만 여 급의 목을 베고, 小兄 阿達兮 등을 사로잡았으며 兵械가 만을 헤아릴 정도의 전과를 올렸다.<sup>76)</sup>

662년의 군량수송작전에서 김유신이 소정방에게 군량을 전달한 이후, 당군이 퇴각하고 신라군도 철수하였다. 이때 고구려군은 신라군의 철수를 예상하고 부대를 배치하였다가, 신라의 기만으로 인하여 뒤늦게 추격하였다.<sup>77)</sup> 기록에서는 포하(과천)에서 고구려군에 대항하여 신라군이 역습을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퇴각하는 길에 김유신은 북과 북채를 소의 허리와 꼬리에 매달았다고 하였는데, 군량을 수송하는데 동원하였던 소를 활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땀나무를 쌓아 불태우면서 이동하는 것은 상대에서 고의적으로 위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상대방이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한 疑兵之計로 볼 수 있다.<sup>78)</sup>

신라군은 고구려군의 추격에 만노를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만노에 대해서는 수많은 화살이 함께 발사되는 병기로 이해하기도 하며, 1만 명이 한꺼번에 노를 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千步弩와 같이 먼 거리에서 쏠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었겠지만, 여러 명의 상대에게 수많은 화살을 발사하는 무기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즉 고구려군의 추격로를 상정하고, 이에 맞춰 미리 만노를 준비하여 대기하고, 일정한 구간에 고구려군이 진입하였을 때 일제히 발사하는 식으로 역습을 가한 것이다. 김유신이 펼친 포위섬멸전의 결과 고구려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아달해 1명을 제외한 소형 관등 이상의 지휘부가 대부분 몰살했을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79)</sup>

75) 『삼국사기』 권42, 열전2, 金庾信 中. “十二月十日 與副將軍仁問·真服·良圖等九將軍 率兵載糧 入高句麗之界……(中略)……良圖以兵八百人 泛海還國 時麗人伏兵 欲要擊我軍於歸路 庾信以鼓及桴擊羣牛腰尾 使揮擊有聲 又積柴草燃之 使煙火不絕 夜半潛行至韃河 急渡岸休兵 麗人知之來追 庾信使萬弩俱發 麗軍且退 率勵諸幢將士分發 拒擊敗之 生禽將軍一人 斬首一萬餘級 王聞之 遣使勞之 及至 賞賜封邑·爵位有差”.

76)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6, 文武王 2년. “王命庾信與仁問·良圖等九將軍 以車二千餘兩 載米四千石·租二萬二千餘石 赴平壤……(中略)……庾信等聞唐兵歸 亦還渡瓢川 高句麗兵追之 迴軍對戰 斬首一萬餘級 虜小兄阿達兮等 得兵械萬數”.

77) 김유신의 소를 이용한 기만 및 신라군의 퇴각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된다. 이 연구에서는 야음을 틈타 황주와 송림 사이 즉 남쪽의 다곡로를 이용하여 고구려군의 허를 찌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 이상훈, 2012, 116~118쪽.

78) 송영대, 2015a, 60쪽.

79) 이민수, 2022, 114쪽.

역습은 상대방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야 수행할 수 있는 전술이다. 김유신은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공격 시점을 유도하였다.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 강가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본다면, 고구려군이 渡河한 이후에 전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도하할 경우 군사의 대열이 정돈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병력의 분산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신라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구려군을 공격한 것이고, 여기에서 성공하여 고구려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 IV. 맺음말

김유신은 30년 넘게 전쟁을 경험하며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였다.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략과 전술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은 그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여 신라군을 승리하게 하였다. 결국 그러한 그의 노력은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유신이 입안하고 수행한 전략과 전술을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전략으로는 기만전략삼도운용전략간첩 활용 전략으로 구분하고, 전술로는 돌격전술·기습전술·위장전술·포위전술·역습전술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전략과 전술은 상대방을 속여서 아군에게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전쟁 혹은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방책이다. 기만전략은 상대를 속인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바탕이 된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642년 김춘추 구출작전이 있다. 김춘추는 대야성 전투 이후 백제에 복수하기 위하여 고구려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러 갔지만, 되려 죽령 서북의 땅을 내놓으라는 고구려의 요청을 받고 억류되었다. 이때 김춘추가 선도해의 제안에 따라 별주부전의 사례를 거론하고, 김유신이 국경에서 병력을 움직여서 김춘추가 구출될 수 있었다.

삼도운용전략은 군대를 3군으로 분산시켜 적을 공격하는 식으로 병력을 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648년 3월에 백제가 요거성을 비롯하여 10여 성을 함락하자, 김유신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3도로 나누어 의지의 군대를 격파한 사례가 있다. 또한 660년 황산벌전투에서도 백제군에 맞서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4번 싸우는 식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진군 방향을 달리하면서도 적시에 공격하는 전략이다보니, 이 외에도 여러 군으로 나누어 싸운 사례가 확인된다.

간첩활용전략은 크게 향간내간반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향간계와 관련하여 김유신의 군대가 양오에 이르렀을 때 노인을 통해 정보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내간계와 관련하여 김유신은 백제의 좌평 임자를 통해 백제 내부의 정보를 확보하였다. 반간계와 관련해서는 김춘추 구출작전에서 고구려 간첩 승려 덕창을 통해 김유신의 군사적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고구려가 포착하게 한 사례가 있다. 또한 649년 8월 도살성 전투에서 김유신은 간첩이 올 때 즈음

에 軍中에 내일 원군이 온다는 정보를 알려 백제가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일시에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사례가 있다.

김유신의 돌격전술은 629년 낭비성전투, 627년 무산성 구원 전투, 660년 황산벌전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낭비성전투에서는 김유신이 직접 적진으로 돌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으며, 무산성 구원 전투에서는 비령자거진합질이 돌격하였고, 이를 본 신라군이 격분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황산벌전투에서도 반굴과 관창의 활약으로 신라군이 분전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기습전술의 사례로는 648년 옥문곡전투와 664년 사비성전투가 있다. 김유신은 백제군에게 거짓 패배하여 이기지 못하는 척 하면서 옥문곡으로 후퇴하였고, 백제군이 추격하자 복병을 동원하여 앞뒤로 공격하여 물리쳤다. 사비성전투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안개로 인하여 사람과 물건을 분별하지 못할 때 김유신의 명에 따라 신라군이 은밀하게 기동하여 승리하였다.

위장전술은 아군의 형세를 숨겨 적을 속게 만들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술이다. 647년 비담과 염종의 난의 사례나 660년 백제군으로 위장하여 당군을 공격하자는 계책에서 선보인 바 있다. 비담과 염종의 난 때 월성으로 별이 떨어지자, 도리어 허수아비를 불에 태워 연에 태워 하늘로 올려보내서 아군의 사기를 드높여 승리하였다. 백제가 멸망한 뒤 당이 신라를 공격할 김새를 보이자, 백제인의 옷을 입고 당군을 공격하자고 제안한 사례가 있다.

포위전술은 상대를 에워싸서 공격하는 전술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661년 웅산성 전투가 있다. 김유신은 백제군에게 항복을 권유하여 민심을 흐트러뜨리고, 대책을 불태워 항복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역습전술은 상대의 공격에 맞서 역으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662년 김유신의 군량수송작전 이후 신라군의 퇴각 때 고구려의 군대를 역습한 사례가 있다. 신라군은 표하(과천)를 건너고 고구려 군대가 추격할 때, 만노를 활용하여 고구려군을 일제히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이처럼 김유신은 여러 전투에서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 김유신의 군사적 성과는 김유신 개인의 능력도 컸지만, 그동안 신라가 삼국 간의 항쟁에서 축적하였던 수많은 전쟁 경험도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백제와 고구려와 싸웠으며, 패배하더라도 이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차후에 이길 수 있을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략과 전술은 단기간에 육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즉 신라의 역대 전쟁 성과에 대해 치밀한 검토를 하고, 수많은 전투를 통해 실전 경험을 충분히 쌓은 김유신이 이를 종합하여 삼국통일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투고일: 2024.10.13, 심사개시일: 2024.11.29, 게재확정일: 2024.12.09.

【참고문헌】

- 고창민, 2021, 「660~661년 고구려의 漢山州 공격과 신라의 방어 전략」, 『서울과 역사』109.
- 강종훈, 2004, 「7세기 통일전쟁기의 순국 인물 분석: 『三國史記』 列傳 7에 실린 新羅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25.
-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2, 『삼국통일의 군사전략』.
- 김강훈, 2020, 「629년 신라의 낭비성 전투 승리와 그 의미」, 『사학연구』138.
- 김덕원, 2016, 「고구려 연개소문의 대백제·신라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학논총』45.
- 김덕원, 2019, 「칠중성의 영유권 변천과 전략적 역할」, 『한국고대사탐구』33.
- 김명준, 2013, 「선덕여왕(善德女王) 대 〈풍요(風謠)〉의 불교정치적 의미」, 『우리文學研究』39.
- 김병남, 2013, 「백제 부흥전쟁기의 웅산성 전투와 그 의미」, 『전북사학』42.
- 金福順, 2008, 「김유신(595~673) 활동의 사상적 배경」, 『新羅文化』31.
- 김수태, 2018, 「웅진도독부의 백제부흥운동 재론: 664년 사비산성 전투를 중심으로」, 『백제학보』25.
- 金榮官, 2010, 「660년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에 대한 고찰」, 『新羅史學報』20.
- 金瑛洙, 2007, 「김유신의 첩자활용과 첩보술에 관한 일연구」, 『軍史』62.
- 나승균, 2012, 「나제전쟁에서의 간접접근전략 연구: 나·당연합국과 백제군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군사발전연구』30.
- 노양규, 2013, 「662년 식량수송작전을 통해 본 김유신 장군의 활동과 함의」, 『한국군사학논총』2-2.
- 柳昌煥, 2010, 「三國時代 騎兵과 騎兵戰術」, 『韓國考古學報』76.
- 문동석, 2016, 「660년 7월 백제와 신라의 황산벌 전투」, 『新羅史學報』38.
- 扶餘郡誌編纂委員會, 1987, 『扶餘郡誌』, 扶餘郡.
- 성형권, 2023, 『전술의 기초』, 마인드박스.
- 손무 著, 유동환 譯, 1999, 『손자병법』, 홍익출판사.
- 송영대, 2015a, 「6~7세기 신라의 전략·전술 입안과 활용」, 『韓國史研究』169.
- 송영대, 2015b, 「『삼국사기』를 통해 본 6~7세기 신라의 무기체계」, 『사학연구』117.
- 劉寅 直解, 成百曉·李蘭洙 譯註, 2012, 『譯註 孫武子直解 吳子直解』, 전통문화연구회.
- 윤성호, 2019, 「신라 진평왕대 대고구려 전투의 의미」, 『역사와경계』110.
- 윤일영, 2011, 「황산벌 전투: 黃山原·三營·三道의 위치, 戰鬥配置·經過·結果」, 『군사학연구』9.
- 이도학, 2010, 『백제 사비성 시대 연구』, 일지사.
- 이도학, 2023, 「신라의 中原 지역 진출과 娘城·娘臂城의 考證」, 『지역과 역사』 52.
- 李文基, 2016, 「648·649년 신라의 對百濟戰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47.
- 이민수, 2019, 「백제 멸망기 당의 신라 침공 계획」, 『한국고대사탐구』 33.
- 이민수, 2022, 「662년 고구려의 평양성 전투와 임진강 전투 재구성」, 『한국고대사탐구』 41.

- 이상훈, 2012, 「662년 김유신의 군량 수송작전」, 『국방연구』 55-3.
- 이상훈, 2016a, 「나당연합군의 군사전략과 백제 멸망」, 『역사와 실학』 59.
- 이상훈, 2016b, 「661년 북한산성 전투와 김유신의 대응」, 『국학연구』 31.
- 이상훈, 2021, 「황산벌의 위치와 전투의 재구성」, 『서강인문논총』 60.
- 이재준, 2016, 「나·당 연합군의 침공전략과 백제의 대응」, 『韓國軍事學論集』 72.
- 이준성, 2014, 「서양, 중국, 한국에서의 쇄뇌(노)의 역사와 전술적 운용 고찰」, 『군사연구』 137.
- 이태규, 2012, 『군사용어사전』, 일월서각.
- 장창은, 2016, 「660~662년 고구려와 신라·당의 전쟁」, 『新羅史學報』 38.
- 정구복 외, 2012,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B.A. 프리드먼 著, 진중근·신의철·장찬규·모영진 共譯, 2023, 『전술의 정석』, 길찾기.

## 【Abstract】

## Kim Yusin's strategy and tactics during the war of the three kingdoms

Song, Young-dae  
(Konkuk University)

Silla developed and applied numerous strategies and tactics while unifying the three kingdoms. Silla's strategies and tactics can be understood through Kim Yusin's military activities. Kim Yusin was evaluated as a wise general, and he was able to win the war by utilizing his outstanding strategy.

Kim Yusin's strategies include the deception strategy, the three-way operation strategy, and the spy utilization strategy. The deception strategy is a strategy to deceive the opponent and create a situation that is advantageous to the allies. The three-way operation strategy is a strategy to divide the army into three groups and attack the enemy at the right time and place. There are confirmed cases of the spy strategy using the local spies, the inward spies, and the converted spies.

Kim Yusin's tactics include the assault tactic, surprise attack tactic, camouflage tactic, siege tactic, and counterattack tactic. The assault tactic is a tactic of rushing into the enemy's camp, confusing and striking the enemy's camp. In Silla, there were many cases where he risked his life to seize the opportunity to win. The surprise attack tactic involved luring the enemy after a false defeat and striking them or using their spirit to attack. The camouflage tactic was used to change the mood by deceiving the enemy's position or to confuse the enemy. The siege tactic was mainly deployed during siege warfare, and there are cases where the enemy's military power and morale were broken by offering surrender and then attacking. The counterattack tactic refers to a tactic of attacking the enemy in a situation where they did not expect it.

Kim Yusin greatly contributed to S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by utilizing strategies and tactics in various aspects. Kim Yusin's strategies and tactics were based on the knowledge that Silla had accumulated through wars, and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trengthening of Silla's military capabilities becam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Keywords** : Unifying the three kingdoms, Silla, Kim Yusin, Strategy, Tactics